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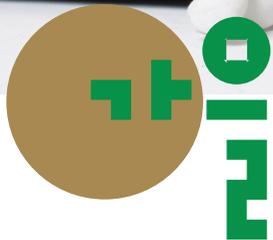
주택연금

Vol. 2+ Autumn. 2012

내집에서 그대로 당당하게 즐기는 노후
Happy Finance 365⁺



한국주택금융공사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주택연금 5주년, 노후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

주택연금이란?

집은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께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생활비를
연금방식으로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의 특징

- 1 **평생거주, 평생지급**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와 연금지급**을 보장합니다.
- 2 **공적보증**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 3 **낮은 대출 금리** 일반주택담보대출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합니다. (3개월 CD금리+1.1%)
- 4 **저렴한 초기비용** 저당권 설정 시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국민주택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
- 5 **세제지원** 주택연금 대상 주택은 **재산세 25% 감면**되며, 대출이자비용은 연금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본 책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간하는 주택연금에 관한 무료 소식지입니다.



CONTENTS

Vol. 2
Autumn 2012

CEO Message	02.
Special Interview 김재천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사장	04.
All about 고령화와 주택연금의 역할	06.
Happy People 주택연금 1만 번째 가입자 김용애 · 손병례 부부	10.
Special Report 통계로 보는 주택연금	12.
Zoom In 주택연금, 이런 게 궁금해요!	14.
Senior Study 새 일자리로 여는 성공적인 인생2막	16.
Health + 행복한 장수를 위한 방법	18.
Happy Life 지리산 둘레길과 울진 대곶길	20.
Culture Story 어르신을 위한 도심 속 문화 공간	24.
지사소개 1만 번째 주택연금 고객이 탄생한 서울서부지사를 소개합니다	26.
고객수기 주택연금 가입 1만 명 돌파 기념 체험수기<최우수상> 작	28.
퀴즈	32.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 공기업입니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6-1
TEL 1688-8114

2012. Autumn

발행일 _ 2012. 9. 20
발행처 _ 한국주택금융공사
발행인 _ 서종대(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편집위원장 _ 박승찬(주택연금부장)
제작 대행 _ 중앙일보시사미디어(주)
편집장 _ 전유선 simamoto69@joongang.co.kr
취재기자 _ 윤정아 redsky@joongang.co.kr
김상호 sanghosa@joongang.co.kr
여경미 kyeongmi@joongang.co.kr
장혜옥 lucida73@naver.com
최경원 happyworry@nate.com

리터치 출력 _ Tricom
인쇄 _ (주)삼화인쇄

주택연금 출시 5주년, 가입고객 1만 명 돌파를 자축하며

안녕하십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서종대입니다.

지난 여름 극심한 무더위 속에서도 어르신들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공사 소식지인 「주택연금」 창간호 발간 이후 이번에는 가을호로 어르신들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07년 7월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출시한 주택연금이 벌써 출시 5주년을
맞았으며, 지난 8월 6일에는 가입고객이 1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5년 만에 1만 건 돌
파는 주택연금 제도가 가장 활성화된 나라인 미국(출시 후 5년 동안 6,894건 가입)보다
41% 빠른 증가 속도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주택연금이 어르신들의 사회안전망으
로 빠르게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전례 없이 빠른 고령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로 인해 어르신들의 사회안전
망 구축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서민의 주거안정과 어르신들의 노후생
활안정이라는 공사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공사 임직원 모두가 기존 상품의 제도개선은
물론 새로운 상품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금년 7월 2일 목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시인출 한도를 30%에서 50%로
늘려 의료비, 자녀 결혼비용 등 뜻하지 않은 지출에도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7월 31일에는 전후후박형(초기 10년간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11년째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신상품을 출시하여 은퇴 후에도 일정기간 소비
활동이 활발한 어르신들의 요구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현재는 부부 모두 60세 이상
인 가입기준을 주택 소유자만 60세 이상이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완화할 예정
입니다.

앞으로도 공사는 수요자 중심의 고객 친화적 제도 개선과 더불어 리스크 관리에도 만
전을 기함으로써 주택연금이 어르신들 노후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국민의 주거행복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더 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공기업 본연의 임무에 더욱 충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앞날에 어르신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
기 바라며, 곧 다가오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에는 가족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서종대



20~30년을 내다보는 안목으로 주택금융 선진화에 앞장서겠습니다

김재천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사장

차분하고 조용조용한 말씨, 온화한 미소 속에서 빛나는 눈빛. 김재천 부사장은 전형적인 학자의 모습이었다. 35년간 한국은행에 재직하는 동안 경기 예측은 물론 분석기법의 선진화를 이끌며 '통화정책의 달인'이라는 명성을 얻었다.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택금융선진화와 국민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김 부사장을 만나 인생철학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았다.

정리 장혜옥 사진 전민규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사장으로서 지난 2달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전에 근무했던 한국은행이나 현재 몸담고 있는 이곳이나 금융기관이라는 특성 때문인지 전체적인 조직 문화나 분위기가 비슷해서 편안한 마음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떤 업무들이 있는지 파악하는 일이었는데,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통해 어느 정도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또한 팀장급 이상 직원들과 한 번씩 점심식사를 같이 하는 자리를 마련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업무 파악도 중요하지만 같이 일하는 직원들을 잘 아는 것도 조직운영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직원들과 점심을 자주한다고 하셨는데요, 직원들에게 주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점심식사 자리니까 가볍게 딱딱하고 어려운 이야기 보다는 직원들의 개인적인 관심사나 취미 등 가벼운 이야기를 꺼냅니다. 평소에는 직원들에게 시간을 잘 활용하라고 말합니다. 이번에 입사한 신입직원들에게도 말했지만 사람에 따라 똑같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도 있고, 효율적으로 시간을 쪼개서 자신의 역량을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은 자리에서 출발했다라도 나중에는 큰 차이가 발생하게 되죠.

우리 공사는 금융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주택금융 선진화와 국민주거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 개개인의 전문성을 높이지 않으면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전문성 개발을 위해서 직원 개개인의 노력과 의지도 중요하지만 회사 차원에서도 직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 재직 시절 오랫동안 조사·분석 연구원으로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연구자가 아닌 경영자로 새로운 일을 맡게 되었는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제가 조사·연구업무를 한 20여 년 정도하고, 그 이후에는 금융시장국장, 부총재보 등을 역임했습니다. 국장급 이상이 되면 실무자들의 보고를 받고,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자로서의 역할은 지금까지 해온 일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업무내용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한국은행은 거시적인 측면에서 경제와 금융을 다룬다면 공사는 '주택금융'이라는 보다 미시적이고 세부적인 파트를 담당합니다. 하지만 '금융'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업무를 파악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주택연금제도 실시 5년째입니다. 부사장님께서서 생각하시는 활성화 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연금 수요는 매년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했고 부모 세대도 자녀들에게 기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가입자 급증에 대비해 재원확충계획을 세우고, 창의적으로 리스크관리기법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연금의 저변 확대와 본격적인 도약을 위해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세제혜택이나 초기비용 절감 등 가입자의 편의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임기 중에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공사가 설립이 된 지 햇수로 9년째입니다. 사람으로 비교하면 우리 공사는 이제 소년기에 해당합니다.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앞으로 더 크게 성장해 나가야 할 시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외국의 다양한 선진 사례를 분석해 우리 주택금융공사가 선진적인 주택금융을 할 수 있도록 청사진을 만들고 싶습니다. 앞으로 20~30년을 내다보는 장기비전 수립을 통해서만이 우리 공사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사장으로서 고객과 직원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따라서 저희를 믿고 불편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은 공공기관에 근무한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되, 희생과 봉사하는 마음 자세로 고객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

WHAT

All About
주택연금 5주년

주택연금 가입자 1만 명 돌파, 고령화와 주택연금의 역할

특별한 노후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해주는 주택연금이 출시 5년 만에 가입자 1만 명을 돌파했다. 급속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주택연금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았다.

글 주택연금부

지금 우리에게 주택연금의 의미는?

“일단 마음이 아주 편안해요. 걱정이 없어요.” 2년 전 주택연금에 가입한 조인수(70·가명) 씨는 지병으로 외출도 마음대로 못했었지만, 이제는 건강이 좋아져 아침마다 매일 집근처 뒷산에 오를 정도가 되었다. “매달 통장에 일정 금액이 꼬박 꼬박 입금되는 게 얼마나 신기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의 아내의 말이다. “장을 보러가도 마음이 편하고 우리대로 생활을 꾸려나가니 자식들 보기에 도 떳떳하구요...”

2050년 한국에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이 넘으리라는 UN의 전망이 2011년에 발표된 바 있다. 고령화는 의학의 진보와 공공시스템의 발전, 그리고 교육의 확대가 만들어낸 인류 최고의 업적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회색 쇼크’(2011년, 테드 C. 피시먼)에서 암시하듯이 고령화가 말 그대로 ‘회색 쇼크’일지 아니면 ‘회색 축복’일 지는 전세계적인 고령화 추세와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변화(복지의 개념, 인간의 개념, 그리고 사회 시스템 측면에서)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 있다.

고령화가 비단 한국에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재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80%에 달하는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삶의 질은 주택연금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만 60~84세의 주택보유자 2,000명과 최근 2년 이내 주택연금 이용자 600명을 대상으로 한 ‘2012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노년층은 연령이 높을수록 수입이 현저히 낮아지는 반면, 주택연금 이용자의 월평균 수입은 연령이 높아져도 소득의 변화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택연금이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연령별 월평균 수입금액 평균 추이

단위:만원

구분	만 60~64세	만 65~69세	만 70~74세	만 75~79세	만 80세 이상
일반노년층	227	175	132	107	95
주택연금이용층	189	164	169	141	147

급속한 고령화와 더불어 저출산 추세의 지속으로 앞으로 한자녀 가정의 자녀들은 자녀 한 명이 부모님 2명과 양가의 조부모 4명, 총 6명의 부양 부담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 자녀에게 짐스러운 존재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이나 나이 들어 몸과 마음이 약해지면 자식에게 기대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그러나 경제적인 독립이 뒷받침된다면 자녀와의 유대감을 유지하면서도 의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하신 분들 중 연금을 받은 이후 건강이 좋아졌다는 분들의 말씀을 자주 듣는다. 걱정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몸도 건강해지는 걸까? 우리의 몸은 신기하게도 상당 부분 마음과 함께 움직이는가 보다.

집은 팔리지 않고, 생활비 나을 곳이 없는 어르신들께 주택연금이라는 비밀 언덕이 있으니 이제 마음을 편히 가지셔도 될 듯하다. 뿐만 아니라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마지막 카드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니 주택연금을 믿는 것은 비단 어르신들 만은 아닐 듯 하다.



주택연금 이렇게 변해왔어요

주택연금은 2007년 7월 출시 이후 끊임없는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고객들의 편의를 개선하여 왔고 이에 따라 가입자 수도 크게 늘었다.

먼저, 보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던 인지세 계산방식을 개선하여 총사용한도를 기준으로 산정되도록 변경하여 고객들이 부담하던 인지세를 대폭 절감하였다. 부부 모두 65세 이상, 6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던 가입요건을 부부 모두 60세 이상,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하는 한편, 총사용한도는 출시 초기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증액하였다. 가입 초기 선순위 대출금이 있으면 가입이 안 되던 것을 가입 후 목돈을 꺼내 쓸 수 있는 일시인출금(총사용한도의 50% 이내)을 받아 선순위 대출금

주택연금 주요 제도개선 사항

구분	'07. 7.12 출시 당시	'12. 8월 현재
가입 요건	가입연령 부부 모두 65세 이상	가입연령 부부 모두 60세 이상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총사용한도 3억원	총사용한도 5억원
수시인출	총사용한도의 최대 30% (최대 9천만원)	일반용도 포함 총사용한도의 최대 50%(최대 2억5천만원)
	선순위대출금 상환 불가	선순위대출금 상환 가능
지급방식과 지급유형	종신지급방식 및 종신흡합방식간 상호 변경 불가	종신지급방식 및 종신흡합방식간 상호 변경 가능
	지급유형은 정액형	지급유형에 증가형(연3%↑), 감소형(연3%↓), 전후후박형 추가 (상호 변경은 불가)
초기비용	근저당권 설정시 등록세 면제(설정금액의 0.2%) 교육세 면제(등록세액의 20%) 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설정금액의 1%)	근저당권 설정시 기존 혜택에 농어촌특별세 면제 추가 (등록세액의 20%)
	초기보증료 환급제도 없음	약정철회시 초기보증료 환급 (2회차 수령 전)
이용편의	일정조건 충족시 소득공제 (연소득 1,200만원 이하, 주택가 3억원 이하)	조건없이 모든 가입자 소득공제
	일정조건 충족시 재산세 25% 감면 (연소득 1,200만원, 주택가 3억원,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조건없이 모든 가입자 재산세 25% 감면
	이사 불가(해지 후 신규가입)	이사 가능(조건변경으로 처리)



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최근 일반 용도의 일시인출금 한도를 기존의 총사용한도의 30%에서 50%로 확대한 바 있다. 초기부터 적용되었던 근저당권 설정시 등록세 면제, 교육세 면제, 국민주택채권매입 면제 혜택 외에 농어촌특별세 면제 혜택을 추가하였고, 초기보증료도 환급이 불가하던 것을 2회차 월지급금 수령 전 약정철회시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소득공제와 재산세 감면혜택은 까다로운 조건을 폐지하여 조건없이 적용 가능토록 하였고, 출시 초기 이사가 불가하여 해지 후 재가입하는 불편이 있었던 것을 조건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기존의 부부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하던 요건을 주택소유자만 60세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완화하기 위해 현재 입법예고 중이며, 하반기 중 공사법 개정안 통과 후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앞으로 가야 할 길

‘2012년 주택연금 수요실태조사’에 따르면 주택연금에 대한 인지도는 64%로 2010년 대비 8.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반 노년층의 13.8%가 향후 주택연금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주택연금 이용자의 상품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전체 이용자의 64.3%로 2008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08년 45.5% ⇒ ’10년 63.0% ⇒ ’12년 64.3%)를 보이고 있으며, 주택연금을 타인에게 추천하려는 의향도 67%로 매년 증가(’08년 45% ⇒ ’10년 63% ⇒ ’12년 67%)하고 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자녀에게 도움을 받고 싶지 않아서’가 가장 많았다. 평생거주, 평생지급을 가장 큰 장점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반면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어지는 점과 월지급금이 기대에 비해 적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베이비부머의 본격적인 은퇴와 함께 주택연금에 대한 기대와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가입자 급증에도 주택연금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지급금 산출을 위한 주택연금모형의 주요 변수인 사망률, 주택가격 상승률, 연금산정이자율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매년 중장기 수지전망 용역을 통해 주요변수를 재산정하고 있으며, 위기상황시의 단계별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주요 부서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장기적인 불황과 주택시장 침체속에서 집값이 떨어져도 그대로 평생 지급하는 주택연금은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

WHO

Happy People
행복한 가입자

주택연금 1만 번째 가입자 김용애 · 손병례 부부 우리는 주택연금 전도사입니다

지난 8월 6일 1만 번째 주택연금 가입자가 탄생했다. 주인공은 바로 흑석동에서 사는 김용애 · 손병례 부부. 보다 여유로운 노년 생활을 즐기기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한 부부는 만 번째 고객이 되는 행운을 얻어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글 장혜옥 사진 원동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2시간씩 운동을 하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두 번씩 수목화를 배우고, 주말에 등산을 즐기고 있습니다.”

일흔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느 젊은이들 못지않은 활기찬 생활을 즐기고 있는 김용애 어르신. 기자가 “아버님께서 젊은 시절에 인기 꽤나 많으셨겠다”고 말씀 드리자, 부인 손병례 씨가 “지금도 복근이 있다”고 은근슬쩍 자랑한다. 그 모습

에서 오랜 세월 함께한 노부부의 단란함이 느껴진다.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남편 김용애(71) 씨는 매달 공무원연금을 받지만, 주택연금 홍보자료를 접한 후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공무원연금만으로도 생활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을텐데 굳이 주택연금을 신청한 이유가 궁금했다.

“10년 전 아내가 간경화 진단을 받았어요. 매달 의료비 지출이 많은 편이라 생활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못했어요. 저도 직장생활 하느라 미뤄뒀던 문인화 그리기를 본격적으로 하고 싶었구요.”

만 65세가 되던 해 은퇴를 결심하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자신의 꿈을 다시 펼칠 생각이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만으로는 생활비와 의료비, 취미생활을 위한 여유자금까지 충분하지 않았다. 그러던 차에 4년 전 우연히 신문을 통해 주택연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시 본인의 명의로 된 집이 세를 주고 있는 상태여서 신청을 못하고,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신청하게 된 것이다.

주택연금을 신청한다고 했을 때 자녀들의 반대는 없었을까? 이런 세간의 질문에 김 씨는 부모라고 해서 무조건 자식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에 반문한다.



스스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의지하는 자녀들은 치열한 경쟁사회에서도 살아남기 어렵다는 것.

“아이들과 상의하지 않고 제 단독으로 결정해서 가입했어요. 모두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평소에 유산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누누이 말해왔기 때문에 아이들도 이해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도 주택연금 가입은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별한 수입원이 없는 상태에서 자칫 잘못된 판단으로 가지고 있던 집을 담보로 보증을 서다가 어려워진 사례가 많으며,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이런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최근 친구들에게 주택연금 가입 전도사가 되었다. 예전에는 자녀들 눈치를 보느라 부정적이었던 친구들도 그의 권유에 생각을 바꾸는 경우가 많아졌다.

부부는 여유 있는 연금으로 특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남편 김용애 씨는 희수가 되는 7년 뒤에 문인화 전시회를 열기 위한 자금을 모으는 중이다. 그는 “전시회를 하려면 대관료, 도록 제작 등 비용이 든다. 오랜 꿈을 멋지게 이루고 싶다”고 말했다. 부인 손병례 씨는 “오래 전부터 불우이웃을 위해 기부해 온 게 있는데, 이제 생활비가 늘어난 만큼 조금 더 늘릴 생각”이라고 말했다.

어느덧 집 한 채로 평생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자가 10,000명을 넘어섰다. 1만 번째 가입자라는 행운의 주인공이 된 김용애 · 손병례 부부가 앞으로 도 오래오래 함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



HOW

Special Report
통계로 보는 주택연금

통계로 보는 주택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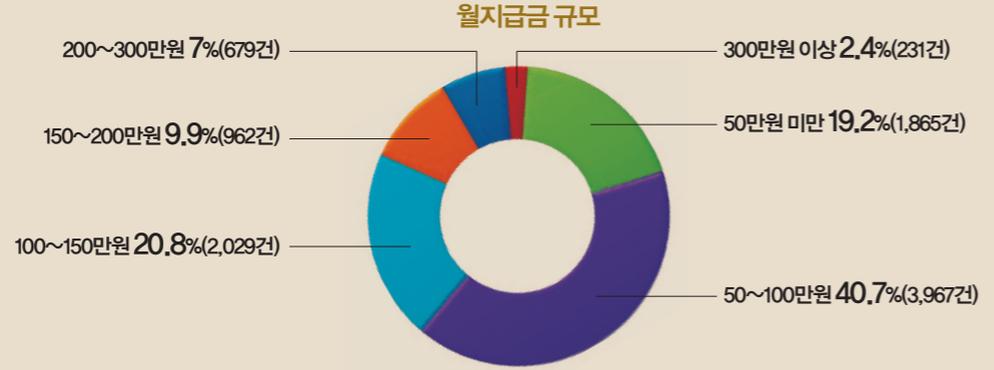


주택연금 가입자가 1만 명을 돌파했다. 제도가 도입된 2007년 7월 이후 5년 만이다. '초가삼간'이라도 집을 자식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정서 때문에 당초 우리 국민에게는 받아들여지기 힘든 제도였다. 그러나 꾸준한 홍보와 제도 개선으로 가입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제 제도에 올라 정착 단계에 들어선 주택연금의 지난 5년간 성과를 통계로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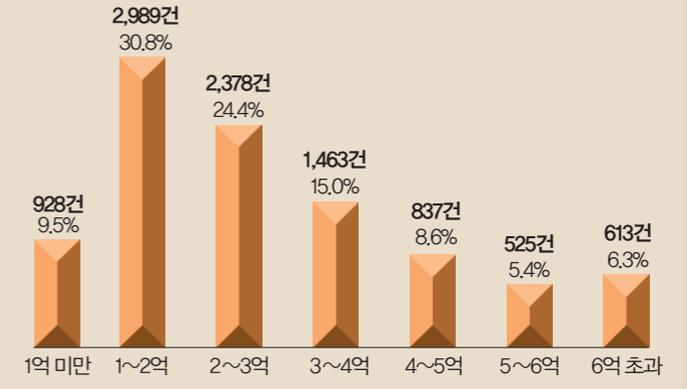
정리 주택연금부



지난 5년간 주택연금 가입자 수는 몇 명일까? 주택연금 신규가입 실적은 상품 출시 첫 해인 2007년도 이후 매년 급증하여 만 5년 만인 2012년 7월 11일 기준 총 9,733명이 가입하였으며, 지난 8월 6일 1만 명을 돌파했다. 주택연금 가입자수의 급격한 증가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기대여명 증가에 따라 상속의 개념이 변화하고,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보다는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려는 인식 확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받는 평균 월지급금은 103만원으로 도시가구 평균 근로소득의 80% 수준으로 나타나 주택연금이 특별한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생활비 마련에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50만~100만원 미만인 40.7%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100만~150만원 미만 20.8%, 50만원 미만 19.2% 등의 순이었다. 또 150만~200만원 미만이 9.9%, 200만~300만원 미만이 7.0%였으며, 300만원 이상 고액 수령자도 2.4%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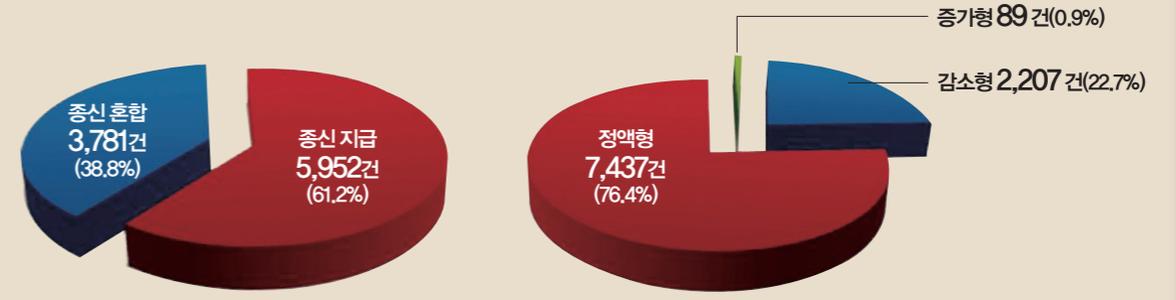
가입자들이 담보로 내놓은 주택의 가격은?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담보주택 평균 가격은 2억7,800만원으로 조사됐다. 가장 많은 주택가격은 1억~2억원 미만이 30.8%, 2억~3억원 미만 24.4%, 3억~4억원 미만 15.0%, 1억원 미만 9.5%, 4~5억원 미만 8.6%, 6억원 초과 6.3%, 5억~6억원 이하 5.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최고가액인 9억원의 주택소유자도 36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담보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규모로는 85㎡ 이하가 가장 많았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몇 살일까? 주택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령은 73세(부부의 경우 낮은 연령 기준)로 나타났다. 70~74세가 28.6%로 가장 많았고 75~79세 22.6%, 65~69세 21.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가입연령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춘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60대 초반 가입비중이 10.0%였으나 올해 들어 60대 초반 가입비중이 14.5%로 크게 늘어나 누적으로는 11.1%였다. 가입성별은 부부가 59.4%, 독신남이 7.7%, 독신녀가 32.9%로 독신녀의 비중이 독신남의 4배 이상이었다.



가입자가 가장 많이 선택한 주택연금 지급방식과 지급유형은? 주택연금 지급방식은 목돈 인출 없이 일정 금액을 매월 나누어 받는 종신지급방식과 수시로 목돈을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종신흡합방식이 있는데, 지난 7월 11일 기준으로 가입자 중 종신지급방식이 61.2%, 종신흡합이 38.8%를 차지하고 있다. 3가지 지급 유형 중 정액형이 76.4%로 가장 많았고, 감소형, 증가형이 차례로 22.7%, 0.9%를 차지했다.



WHY

Zoom in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주택연금 가입 조건

- 연 령 :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60세 이상
- 주택보유 : 부부 기준으로 1주택만을 소유
- 대상주택 :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 지급유형 : 정액형 / 정률감소형 / 정률증가형 / 전후후박형

주택연금, 이런 게 궁금해요!

주택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 주택연금에 가입했는데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다면? 이사를 가야한다면 어떻게 할까? SNS, 트위터 등을 통해 고객들이 정말로 알고 싶어 하는 깨알 같은 호기심만을 모아 속 시원하고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정리 주택연금부

문 상가주택(복합용도주택)으로도 가입이 가능한가요?

답 주택연금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는 일반주택(또는 노인복지주택)에 대하여만 취급이 가능하며,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상가 및 주택' 등으로 표시되며 통상 주택부분만 별도로 구분등기가 되지 않은 복합용도주택은 취급이 불가합니다.

문 집을 담보로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가입이 가능한가요? 또는 중간에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요.

답 주택연금 지급방식에는 일정한 금액을 매월 나누어 지급받는 종신 지급방식과 목돈 사용을 위해 일정금액을 인출한도로 설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매월 나누어 지급받는 종신흡합방식의 2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종신흡합방식으로 가입 후 일정 기간내 일시인출금을 받아 이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이 없어도 중간에 지급방식을 변경하여 총사용한도의 50%이내에서 목돈을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목돈을 쓴 만큼 월지급금은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3억원이고, 가입 당시



연령이 70세일 경우 정액형으로 가입시 월지급금이 103만원인데, 목돈을 최대 8,070만원까지 쓸 수 있고, 이 경우 매월 받는 월지급금은 51만원으로 감소합니다.

문 주택연금 이용 도중 이사를 할 수 있나요?

답 주택연금 이용 도중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규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해야 합니다. 만약 신규주택가격이 기존 담보주택가격보다 낮을 경우 기존에 사용한 연금(일부 또는 전부)을 상환해 주셔야만 합니다. 또한 신규주택가격과 기존담보주택가격의 차이에 따라 월지급금은 변경될 수 있고, 초기보증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 주택연금을 받는 중에 주택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되면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 일반적으로 재건축/재개발이 진행되면 철거로 인해 담보주택이 멸실되고 실거주도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는 주택연금 계약해지 사유가 되어 주택연금지급이 정지되며 그동안 받으신 연금총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 예정인 집을 처분하고 다른 집을 구입하셔서 이사하게 된다면 담보주택 변경 절차를 밟아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 만약, 주택연금에 가입한 이후에 집값이 오른다면 연금도 올려서 주나요? 반대로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답 주택가격이 오르거나 내려도 가입시점에 결정된 월지급금은 변동 없이 주택연금 종료시까지, 즉 부부가 살아계시는 동안 지급됩니다. 가입시 결정된 월지급금은 향후 주택가격 상승률이 매년 3.3%씩 상승하는 것으로 하여 산출된 금액입니다. 주택가격의 변동에 따라 월지급금을 변동시킬 경우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는 월지급금을 낮추어야 하고 극단적으로 월지급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 주택연금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은데 거동이 불편합니다. 꼭 해당 지점에 방문해서 상담해야 하나요?

답 상담을 원하실 경우 공사로 직접 방문하시는 것 외에도 고객센터(1688-8114)로 전화주시거나 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 공사 직원이 직접 찾아가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

제2의 인생 새 일자리로 여는 성공적인 인생2막

고용노동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최고 연령층인 5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3.7%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성공적인 재취업으로 인생2막을 열어가는 방법이 많다는 의미다. 은퇴 후 재취업 정보,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글 정일환 사진 Jphoto



대기업 유통분야에서 20여년을 근무한 박성훈(61·가명) 씨는 수출지원·번역·총무 업무를 거쳐 수입·영역부부장, 관리이사 등의 경력을 착실히 쌓은 뒤 퇴직했다. 퇴직한 뒤 새로운 일자리를 찾던 그는 마침 일어와 기술력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던 무역회사에 선발돼 현장연수를 받고 있다. 정부가 주관하는 은퇴자 일자리 찾기 프로그램에 지원한 덕분이다. 물론 수출입 업무를 맡는 동안 길러둔 유창한 일본어 실력이 큰 도움이 됐다.

고용노동부 '50+ 새일터 적응지원 사업'

박성훈 씨가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렵다는 재취업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은 '50+ 새일터 적응지원 사업' 덕분이다.

정부에서는 올해 처음 50세 이상 퇴직자들을 위한 국비지원 재취업 훈련과정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중앙회가 함께 진행하는 '50+ 새일터 적응지원 사업'이다. 올해는 1600명의 연수생을 뽑을 예정이다. 지원자들은 기업에서 1~3개월간 연수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정부에서 매월 일정액의 수당을 받게 된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새일터 적응지원 사업은 50세 이상 구직자들이 중소기업 현장연수를 통해 새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기업과 연결해 3개월 이내 동안 연수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하며, 참여자에게는 최대 월 40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참여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최대 5000원(제조업 5000원, 비제조업 4600원) 선이다. 당장 많은 급여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연수기간을 마치고 정식으로 취업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 프로그램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고용지원센터에 구직 등록을 하고도 취업하지 못한 5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베이비부머 퇴직과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에 따라 중고령자 노동인력의 활용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만큼, 올해 2000명 연수생 배정을 추진하고 향후 인력부족률을 감안해 사업을 추가할 계획이다.

50+ 새일터 적응지원 사업

신청대상	50세 이상 구직자
신청자격	취업지원 프로그램 및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 훈련 이수 후 미취업자 또는 이수자, 고용센터·지자체 및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에 구직 등록하고 3개월간 미취업한 자
지원혜택	현장연수 참여자에게 최대 3개월간 월 40만원 수당 지급
신청방법	중소기업중앙회나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홈페이지(www.kbiz.or.kr/ www.careerjob.or.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접수는 우편이나 팩스(02-2121-3298), 이메일(50plus@kbiz.or.kr)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
문의	중소기업중앙회(02-2124-3291), 중견전문인력종합고용지원센터(02-3306~3308)

전경련 Re-Bounce 프로그램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은 '중견전문인력 재도약(Re-Bounce) 프로그램'으로 베

이비부머의 재취업을 도와준다. 전경련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진행하는 이 프로그램은 중견인력 재취업 전 과정의 교육을 받고 있다. 재취업은 면담-재취업 전략수립-지원기업 선정-중소기업 탐방-취업박람회 참가-입사지원 등 6단계로 실시된다.

이 프로그램은 전문 컨설턴트가 4명의 교육생을 전담, 개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 컨설팅으로 적합한 중소기업을 선정해 최종 입사까지 연계시켜 준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곳에 입사원서를 냈지만 실패했던 구직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찾게 되는 사례가 많다.

대기업 계열사인 S중공업 출신인 김석훈(58) 씨는 올해 초 정년 퇴직한 뒤 재취업에 나섰지만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우울증 증세까지 앓고 있었다. 하지만 전경련의 수석 컨설턴트와 면담을 거쳐 중소기업을 알게 되고 입사에 자신감을 갖게 됐다고 한다.

전경련은 9월에 기업 퇴직자를 대상으로 교육 과정을 연다. 교육과정 전반을 무료로 시행하며, 희망자는 중견센터(www.fki-rejob.or.kr 또는 02-3771-0366)로 신청하면 된다.

상공회의소 '찾아가는 취업박람회'

서울상공회의소는 서울시와 공동으로 '찾아가는 취업박람회'로 은퇴자들의 재취업

을 돕는다.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인력지원단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서울상공회의소 산하 25개 구상공회와 서울시 자치구가 힘을 합쳐 청장년층 고용활성화와 중소기업 일손 부족을 해결해 주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올해 초부터 2~3개월 간격으로 열리고 있는 취업박람회에서는 채용상담 외에 사회적기업, 환경단체, 창업지원 등 틈새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서류 작성법, 면접 옷차림 등 취업 컨설팅도 진행된다.

박람회 개최 방식은 서울 시내 전 자치구를 순회하는 형식이다. 마포와 서대문, 종로, 중구, 강북, 성북구 등에서 이미 취업박람회가 개최됐고, 9월에는 송파구와 강동구(올림픽공원)에서 열린다. 11월에는 노원구와 도봉구(중계 근린공원)가 예정돼 있다. 참가신청은 박람회 운영사무국(070-8184-3834)이나 홈페이지(www.seouljob.or.kr)로 하면 된다.

서울시 '어르신 활동지원 센터'

서울시가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으로 급증하는 신노년층의 사회공헌과 창업, 재취업

을 지원하기 위해 가칭 '어르신 활동지원 센터'를 9월 중순 개관한다. 어르신 활동지원 센터는 5060 신노년층의 제2의 인생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를 전담하는 지원기구다.

현재 서울시에 '고령자취업훈련센터'가 있지만 훈련공간이 부족해 교육수용률은 2010년 말 기준으로 42.7%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바리스타나 광고모델 등으로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주요 교육 프로그램은 경비, 택배, 건물관리 등 단순 재취업 교육에 한 정돼 있다.

이에 따라 '어르신 활동지원 센터'는 5060 신노년층의 특성과 제2의 인생설계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어르신 활동지원 센터'는 은평구 녹번동 구 국립보건원 8동 2층 전체와 1층 일부에 들어서게 된다.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은퇴 후 인생설계' '사회공헌과 재능나눔' '창업지원' '재취업 훈련' 등이 이뤄진다. 🏠



방문해 볼만한 재취업 알선 기관들

잡월드

jobworld.chosun.com 혹은 www.ibkjob.co.kr
조선일보와 기업은행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취업 전문 무료사이트

워크넷

www.work.go.kr/senior/main/maindo
'대한민국 모든 일자리'를 표방하는 정부 일자리 사이트. 55세 이상 어르신 채용정보를 제공한다.

고용센터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재취업, 이직, 전직 도우미 프로그램. 고령구직자를 대상으로 심층상담 등을 통해 맞춤형 취업알선을 해준다. 서울에는 강남과 동부, 북부 등 8개의 센터가 있고 전국 82개 지점이 운영중이다.

고령자취업알선센터

www.noinjob.or.kr
서울시 각 자치구별로 1개씩 설치된 민간기업 취업알선 센터다. 55세 이상 어르신들께 취업상담 등을 제공하며 매년 7000여명의 일자리를 알선하고 있다.

100세누리

100senuri.go.kr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운영하는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프로그램.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지원일자리사업과 시니어인턴십을 통해 재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건강 100세 행복한 장수를 위한 방법

로마인들의 기대수명은 25세,
1900년까지만 해도 세계 평균
기대수명은 30세였던 것에 비교하면
지금은 진시황이 그토록 바라던
장수시대인지도 모른다.
바야흐로 100세 시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장수의 비결'을 살펴본다.

글 여경미
참고자료 건강박사 유태종의 9988 건강습관(리스크)



'9988 1234' 요즘 마스크에서 흔히 들 수 있는 말이다. '99세까지 팔팔(88)하게 일(1)하다가 2~3일 앓고 죽는다(4)'란 뜻으로 행복한 장수를 뜻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한국인의 기대수명 변화 구조와 보건의료 기여'에 따르면 2010년 기준 한국인 기대수명은 남성 77.20세, 여성 84.07세였다. 우리는 더 나아가 '100세 시대'를 꿈꾼다. 그래서 행복한 장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눈과 귀가 쏠린다. 과연 행복한 장수란 무엇을 말할까? 과학적으로 소개된 장수비결은 의외로 단순하다. 머릿속으론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 힘들었던 식습관, 운동, 수면, 대인관계 등 전반적인 생활 습관이 개선된다면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것이다.

소식은 장수의 비결

'배가 고프다면?' 혹은 '그저 먹고 싶다면?' 우리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손쉽게 음식을 먹는다. 때론 일상생활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풀기도 한다. 영양소가 몸에 다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의식적으로 너무 많은 음식을 섭취할 때도 있다.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으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도 과도한 영양소 섭취는 우리 몸을 힘들게 한다. 실제로 몸은 생명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칼로리만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몸의 요구보다 많은 음식을 섭취할 경우, 체내에 음식물이 축적되어 혈관을 막고 혈액순환을 방해가 된다. 질병에 쉽게 노출하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단식하거나 소식을 해 축적된 노폐물을 빠지게 하고 몸 안의 장기에 휴식을 줘야 한다. 그렇다고 한 번에 식사량을 줄인다면 오히려 부작용이 날 수 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줄이기보다는 영양 상태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식사량을 줄이고 부족한 영양소는 비타민, 미네랄 등으로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적절한 운동은 장수에 도움

운동은 활력을 주는 윤택유와 같다. 적절한 운동은 신체는 물론, 정서적인 안정을 주기 마련이다. 산간 지역에 사는 어르신들의 경우 공기가 좋은 곳에서 살면서 산을 오르내리며 저절로 운동량이 많아져 장수하는 경우가 많다.



어르신들은 활동량이 적어 신체의 유연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지구력을 필요로 하는 걷기, 조깅, 수영, 사이클링 등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유산소 운동은 몸에 많은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전신의 대사를 활성화하고 내장을 강화시킨다. 또한 심폐기관, 골격근, 인대, 신경계 등을 자극해 여러 부상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해준다. 어르신들은 일어서거나 움직일 때 균형 감각이 저하돼 낙상이나 부상의 위험에 많이 노출된다. 균형 감각이 떨어지면 대퇴골 등에 골절상을 입기 쉬우므로 걸음걸이에도 보다 신경을 써보자. 발 앞쪽에 무게 중심을 뒤편에 틀어진 골격을 바로 잡고 아랫배 단전에 기운이 쌓이도록 걷는다.

충분한 수면을 취해야

장수와 수면의 연관성이 있을까? 전문가들은 잠을 충분히 자는 것 역시 장수의 비결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대략 하루에 7시간 정도 자는 것이 건강을 보호하고 만성질환에 걸릴 위험성을 낮춘다. 잠을 적게 자면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기타 유해 화학물질의 분비가 촉진될 수 있다. 한 조사결과, 하룻밤 수면시간이 6시간 미만이면 심장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48%나 높고 뇌졸중을 일으킬 위험성도 1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킨십을 생활화해야

1인 가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고독과 소외감은 장수의 절대적인 적이다. 장수를 하는 사람들은 가족과 이웃 간의 관계가 돈독하다는 특성을 지닌다. 단절과 고립은 생활 의욕이 떨어트리고 자신의 역할이 사회에서 없어진다는 상실감으로 이어져 점점 장수와 멀어지게 한다.

반대로 가족과 나누는 사랑과 스킨십은 장수의 비결이다. 신체 접촉은 불안, 우울증을 개선시키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효과가 있다. 어르신들은 통증, 우울증, 불안감 등을 흔히 겪는다. 가벼운 포옹이나 다독거림이 생활화하는 것이 좋다. 실제로 손을 잡거나 포옹 등의 스킨십을 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5년은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

조선명문가의 장수비결



이익, 한명회 등은 장수한 대표적인 위인이자, 이들은 몇 백 년을 이어온 명문가에서 태어났다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졌다. 그들에게 선비 정신의 전통을 지키는 것과 동시에 건강과 장수의 비결도 대물림됐다. 바른 생활 습관을 가지고 엄격한 기풍 속에 마음의 건강까지 수련을 했던 조선의 명문가들, 몸과 마음의 반듯함이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었던 셈이다. 이황, 이익, 정약용은 평생 시에 소신하며 기쁨진 음식과 술을 즐기지 않았다. 이익, 박지원, 정약용, 김정희 등은 노년에도 학문에 손을 놓지 않았다. 제자를 양성하고 저술 활동을 계속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었다.

지리산 품어보는 800리길, 둘레길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다. 오랫동안 걷기 여행 명소로 사랑받고 있는 지리산 둘레길에서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

‘둘레길’로 불리는 지리산 길은 전라북도과 전라남도, 경상남도 3개 도에 흩어져 있는 80여 개 마을을 잇는 도보길이다. 장장 300여km 장거리 코스로 모두 16개 구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겨운 농촌 풍경을 벗 삼아 논둑길과 농로길, 마을길을 걷기도 하고 옛길과 숲길도 만날 수 있다. 저마다 길이 제각각 특색이 있어 새로운 구간을 걸을 때마다 느낌이 색다르다.

그 중에서도 9구간은 덕산마을에서 위태마을에 이르는 약 14km의 길을 뜻한다. 경남 산청의 사리에서 시작해 하동군 위태리까지 걷는데

덕천강과 두방산 경치를 감상하면서 걸을 수 있다.

길을 걷다 보면 남명 조식 선생의 유적도 둘러볼 수 있고 옛길에서는 운치가 느껴진다. 역사와 문화, 자연과 마을을 보듬으면서 걷는 지리산 둘레길의 취지와도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다. 대부분의 지리산 둘레길에서는 마을 주민들을 배려해야 하지만 9구간을 걸을 때는 주변에 농작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하도록 하자. 농작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태마을안내소에 실명제 부스가 설치되어 있다. 구간을 지나갈 때 안내소를 방문해 책임여행을 실천해보는 것도 좋겠다.

봄철에 많이 찾는 2구간은 지리산 아래봉부터 운봉 시내까지의 20km 정도의 산길이다. 5월이면 연분홍빛 철쭉이 피기 시작하면 마

치 산에 불이 붙은 것처럼 활활 타오른다. 순식간에 온 산을 뒤덮어 마치 불이 붙은 것 같다. 사람들은 이를 보고 ‘꽃불’이라 표현한다. 철쭉이 만개하면 봄 햇살을 받아 더욱 빛나는 철쭉은 분홍색깔 물감을 풀어놓은 듯 절경을 이룬다.

해발 약 500m 고지대에 위치한 운봉목장에서부터 철쭉 군락은 그 면적이 크게 넓어진다. 이곳은 철쭉제 행사가 개최되는 곳으로 행사 기간에는 인파로 북적댄다. 이곳에서 목장을 따라 이어지는 등산로 양편으로 어른 높이만큼 훌쩍 자란 철쭉이 펼쳐진다. 넓은 초지의 목장과 함께 운봉읍과 지리산 자락이 한눈에 펼쳐져 전망이 좋다.

여름철 인기 코스인 7구간은 경남 산청군 단성면 어천마을에서 우리 마을을 잇는 약 13.3km의 코스다. 이 구간은 산비탈을 따라 걸어야 하

기 때문에 다른 둘레길 코스보다 완주하기 힘든 편이다. 어천마을에서 아침재까지는 약 2km, 아침재에서 웅석봉 하부헬기장까지는 약 3.2km다. 헬기장에 이르면 시야가 탁 트이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땀을 식힐 수 있다. 걸어온 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이곳에서 점촌마을까지는 약 6km, 임도를 따라 내려가면 된다. 지리산 자락의 산촌마을과 지리산 주봉들이 손에 잡힐 듯 바라다 보인다.

우리마을을 지나면 백운계곡이 나온다. 계곡에서 임도와 오솔길을 따라 사천면과 단성면의 경계인 고갯길을 넘는다. 8km 정도 구불구불 이어진 임도가 계속된다. 산청군의 오지마을 중 하나인 마군담마을을 지나 덕천서원에 도착한다.

이 밖에도 남원시 주천면 장안리 외평마을과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

산과 바다를 따라 걷는 나만의 휴양지 지리산 둘레길과 울진 대젓길

걷기의 매력은 무척 많아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몇 시간을 걷다 보면 건강도 얻을 수 있고, 바다를 따라 걸으면 옛 추억이 떠오르는 아날로그 감성이 느껴지기도 한다.

이어진 길을 따라 걷는 것, 지루해 보이지만 풍경을 두 눈에 담다보면 계속 걸어도 즐겁기만 하다.

글 김상호 사진 Jphoto



를 있는 14km 지리산길은 옛 운봉현과 남원부를 잇던 옛길이 지금도 잘 남아 있다. 특히 10km 옛길 중 구룡치와 솔정자를 잇는 회덕~내송까지 옛길 4.2km 구간은 길 폭도 넉넉하고 노면이 잘 정비되어 있으며 경사도가 완만해 가족들이 숲길을 즐기기에 제격이다.

바다 따라 이어진 해안도로, 울진 대갯길

경북 울진은 산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계곡과 온천욕을 즐길 수 있는 4가지 매력에 있는 곳으로 4계절 주말 여행코스도 제격이다. 봄철이면 울진대갯길과 붉은 대갯 축제가 펼쳐져 풍성한 먹을거리와 이벤트도 기대할 수 있고, 여름에는 달맞이 축제, 가을에는 오징어 축제까지 지루할 틈이 없다.

경상북도 동북부에 위치한 울진은 동해를 끼고 삼척, 봉화, 영덕 등과 맞닿아 골이 깊고 산지가 풍부한 곳으로 유명하다. 수억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성류굴과 굽이굽이 정겨운 전설을 간직한 불영사계곡, 국내 최고 수질의 백암온천과 덕구온천, 그리고 속중 친필편액이 있는 망양정까지 볼거리도 다양하다. 동해안을 따라 펼쳐지는 약 82km 길이의 블루로드를 청명한 바다색과 조화를 이루며 색다른 풍경을 연출한다.

울진 성류굴은 길이 472m의 천연석회암 동굴이다. 해발 199m 성류산 내부에 펼쳐진 동굴에는 무려 50만개의 중유석, 석순, 석주가 펼쳐져 신비로움을 자아낸다. 무려 2억5000년의 역사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내부에 12개의 광장과 연못 5개가 자리 잡을 정도로 규모가 크다. 동굴 바깥에 서식하는 촉백나무 역시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있다.

불영사와 불영사계곡도 울진을 대표하는 볼거리다. 맑은 물과 울창한 숲이 조화를 이뤄 천혜의 자연경관을 제공한다. 지난 1985년 불영

사계곡을 지나는 36번 국도가 개통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불영사계곡은 근남면 행곡리에서 서면 하원리까지 약 15km에 걸쳐 이어진다. 계곡 주변에는 신라시대 고찰 불영사를 중심으로 광대고 바위, 주절이 바위, 창옥벽, 명경대, 의상대, 산태곡, 수태곡 등 30여 곳의 명소들이 펼쳐진다. 계곡 바닥과 주위 암반은 모두 화강암으로 오랫동안 풍화 침식되며 만들어졌다.

산을 따라 이어진 길이지만 미끄럽지 않은 바위들이 촘촘히 박혀있어 걷기 편하며 등산화와 장비만 잘 갖췄다면 완행을 노력만 하다. 덕구온천은 백암온천과 함께 울진을 대표하는 온천이다. 국내에서 유일한 자연 용출온천으로 유명한데 응봉산 중턱에서 약 42도 정도의 온천수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온다. 이 온천수를 사용해 조성한 곳이 바로 덕구온천이다. 갖가지 미네랄이 풍부해 신경통과 근육통 등에 효험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덕구온천에도 훌륭한 트레킹 코스

가 갖춰져 있다. 온천 원탕(原湯)이 있는 덕구 계곡까지 이르는 약 8km의 트레킹 코스는 길이 완만해 어린 손자, 손녀들과 함께 걷기에도 좋다.

여행에서 먹을거리를 빼놓을 수 없는 법. 울진의 명물인 상싱한 붉은 대갯길 맛보자. 몸통에서 뺏어나간 다리의 모양이 대나무처럼 곱다고 해서 '대갯'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대갯 축제는 울진에서 7번 도로를 따라 이어진 강구항과 축산항에서 겨울 내내 이어진다.

특히 강구항 근처 창포말 등대는 거대한 대갯 집게 모형으로 세워져 있어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과 발을 잡아끈다. 창포말 등대 근처 영덕 풍력발전단지과 고래불해수욕장, 울진과 영덕을 잇는 50km의 길은 속칭 '영덕대갯길'로 불리며 해안 도보여행을 위한 최고의 트레킹 코스로 손꼽히고 있다. 🏠



걷고 싶은 길, 담고 싶은 길

1. 서울 성곽길

북악산과 남산, 인왕산과 낙산을 잇는 20km의 성곽길, 꽃과 나무, 성곽이 어우러진 산책길이다. 삼청동, 명동, 동대문 등 서울의 명소와 이어져 많은 외국인들이 찾고 있다.

2. 수원 화성길

수원 화성행궁을 중심으로 최근 복원 사업을 마친 5km의 산책로이다. 팔달문과 화홍문 등 아름다운 조선시대 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3. 울릉도 행남해안길

울릉도를 한 눈에 둘러보는 산책길. 내륙에서 보기 힘든 질퍽한 바다와 그 위를 걷는 해안 돌계단과 돌다리는 바다 위를 산책하는 기분을 들게 한다.

4. 부산 갈맷길

부산 오륙도에서 해운대, 광안리까지 이어진 300km의 트레킹 코스. 부산의 대표적인 해안 명소를 한 길로 연결했다. 아름다운 조경과 바다가 어우러진 야경이 일품이다.

5. 서산 아라메길

유기방 가옥을 시작으로 해서 마애삼존불을 지나 해미읍성까지 이어진 트레킹 코스. 적당한 높이의 산도 오를 수 있고 유서 깊은 백제시대 유물도 만날 수 있다.

6. 계룡 솔바람길

조선 중기 문인 김장생 선생의 생가였던 사계고택에서 출발해 왕대산을 한 바퀴 두르는 3km의 트레킹 코스다. 소나무 향 짙은 길은 백제시대 유물도 만날 수 있다.

7. 홍천 용수골길

홍천 두촌면 가족마을에서 출발하는 이 산책길은 홍천의 명산, 백운산 정상을 오르고 이끼 계곡으로 유명한 또랑소를 따라 산길을 걸으며 지역 설화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추억과 낭만,
즐거움이 있다!

어르신을 위한 도심 속 문화 공간

어르신들의 공간으로
경로당과 노인복지관만 있는 게
아니다. 단돈 2000원에
옛날 영화관의 분위기를 느끼며
추억의 영화를 보거나
또래 친구와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품격 있는 분위기에서 전통적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뮤지컬을
감상한다. 행복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도심 속 문화 공간을 찾아보았다.

글 정혜옥 사진 서울노인복지센터 · 정동극장

영화 이상의 '정'이 있는 따뜻한 공간 '청춘극장'

연신내역 은평 메가박스 8층에 위치한 청춘극장은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어르신 전용 문화 공간이다. 하루 입장료 2,000원만 내면 영화 관람뿐 아니라 극장 내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상영관은 2개로 1관에서는 외국 영화, 2관에서는 우리 영화를 상영한다. 음료와 팝콘은 기본으로 제공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후원으로 오전 10시 입장하는 관람객 중 선착순 100명에게 빵도 제공된다. 또, 토요일과 공휴일 15시 30분에는 문화공연을 하는데 좌석이 145석 밖에 안 되어 해당 일에는 일찍 와야 입장권을 구매할 수가 있다. 이곳에서는 매일 흘러간 고전 영화를 재상영한다. 지금은 쉽게 볼 수 없는 고전 명화 관람을 통해, 이곳을 찾는 어르신들은 과거의 향수를 느끼고 추억을 되새긴다. 또한 영화 외에도 다양한 문화 강좌, 문화 공연을 마련해 놓았으며 많은 사람들과 만나 대화하고 친해질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한다.

어르신 바리스타가 직접 만들고 서빙하는 '삼가연정'

서울 종로구 경운동 소재 실버북카페 '삼가연정'에는 60세 이상의 어르신 바리스타가 직접 커피를 타고 서빙도 한다. 천원에 케익과 양갱을 2천원에 아메리카노를 즐길 수 있다. 빵잎차, 모과차, 유자차, 양갱 등 노인의 입맛에 맞는 메뉴와 유기농 설탕으로 만든 시럽도 이곳의 특징이다. 실버북카페 '삼가연정'은 2009년 8월 서울노인복지센터에서 운영하기 시작했다. 시중보다 최고 3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커피와 전통차, 호박케이크, 양갱, 쿠키 등을 맛볼 수 있으며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도 제공된다. 이곳에는 어르신 12명이 일하고 있으며 매주 20시간씩 음료를 제조·판매하고 있다. 서울노인복지센터 회원에겐 추가로 10% 할인해 준다.

이 같은 혜택으로 방문객이 하루 평균 300~500명에 이르고 점심시간 직후나 오후 3~4시에는 빈자리를 찾기 어려울 때도 많다. '책, 차, 사람 세 가지 아름다움이 이어지는 정자'라는 뜻을 가진 이 카페는 어르신들의 문화·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내 최초 어르신을 위한 갤러리 '고운님'

지하철 3호선 안국역 인근에 위치한 어르신 전용 갤러리 '고운님'은 2010년 10월 개관한 국내 최초 어르신 전용 실버갤러리이다. 종로구 경운동 동예현을 어르신 전용 문화예술공간으로 리모델링한 것. '고운님'에서는 어르신을 위한 작품전, 전시회, 예술 감상법과 한지 공예체험 등 문화강좌 프로그램이 상설 운영된다. 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작품을 전시하거나 어르신을 위한 특별 작품전, 관람객 대상 작품 감상평 공모전 등도 진행된다. 고운님은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을 연다.

한국적 색채감 짙은 전통 뮤지컬 '미소' 전용극장, 정동극장

운치 있는 덕수궁 돌담길을 5분 정도 걸으면 '미소' 전용극장인 정동극장을 만날 수 있다. '미소-춘향연가'는 고전 대표 러브스토리인 '춘향전'에 아름다운 전통 춤, 국악, 풍물이 어울려 한 무대에서 우리의 전통뮤지컬이다. 이 공연의 가장 특징은 한바탕 축제로 무대와 객석이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한 것, 특히 오프닝과 피날레의 장면에서 배우가 객석으로 나와 함께 노래하고 손뼉 치며 흥겨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각 장마다의 노래를 신국악가요, 민요, 판소리 등을 도입해 우리 소리를 다양하게 들을 수 있어 어르신 관객들에게 호응이 높다. 공연은 Open Run으로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후 4시와 8시에 하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50% 할인된 가격으로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





1만 번째 주택연금 고객이 탄생한 서울서부지사를 소개합니다

지난 3월 5일, 첫 업무를 시작한 서울서부지사는 공사 직원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일터로 소문이 났다. 지사장을 필두로 직원들이 뚝뚝 뭉쳐 신명나는 일터를 만들어 가고 있는 이곳, 1만 번째 주택연금 가입자가 탄생한 서울서부지사를 찾아가 보았다.

글: 장혜옥 사진: 원동현

지난 8월 6일, 서울서부지사는 어느 때와 사뭇 다르게 들뜬 분위기였다. 바로 주택연금 1만 번째 고객이 이곳에서 가입했기 때문이다. 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긴 일이라 그 기쁨이 더했다. 김포시와 부천, 서울 서부지역의 주택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서부지사는 개소한 지 이제 갓 5개월을 넘겼다. 보통 새로 생긴 조직의 경우

효율적으로 업무가 운영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기 마련. 그런데 5개월이 채 안 된 서울서부지사는 기간 대비 실적 성취율 상위권을 자랑하고 있다. 최원창 지사장은 “공사 업무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으로도 수요가 높은 편”이라고 말하면서 “무엇보다도 직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이만한 성과를 이뤄낸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직원들 자랑을 늘어 놓는다.

박종철 팀장 또한 “직장생활을 하면서 좋은 상사와 직장동료를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직원들과 마음이 잘 맞으니 일하는 게 정말 수월하다.”면서 서울서부지사의 가장 큰 강점으로 직원들간의 화합을 꼽았다.

이토록 짧은 기간 동안 직원간의 화합과 단합을 이끌어 낸 비결은 무엇일까? 최원창 지사장은 4가지 운영 원칙을 이야기 한다. 그것은 바로 ‘성과, 청렴, 섬김, 재미’이다. 조직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깨끗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고객을 응대할 때는 가족의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성심성의를 다해야 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원들이 일터를 즐겁게 생각해 한다는 것이 최 지사장의 생각이다.

즐겁고 신나는 직장을 만들기 위해서 최원창 지사장이 선택한 것은 ‘참여’다. 우선 업무의 목표를 정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 직원들이 직접 회의를 거쳐 각 사업 부문별로 업무의 전략과 세부 시행 방안을 만든다. 기간별 달성 목표를 또한 스스로 정한다. 즉, 직원들이 낸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아이디어 내는 것에 부담을 느끼기도 했지만 점차 자신들이 세운 계획대로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타나자 의욕이 불붙기 시작했다.

또 최 지사장은 직원들이 서로 즐거운 기억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하고자 노력한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직원들과 함께 영화나 연극을 보거나, 1박 2일로 여행을 가는 기

회를 종종 마련하는 것. 입사 5개월 차인 임현희 주임은 “친구들을 보면 회식 자리가 2차, 3차 술자리로 이어져 부담스러워 한다. 하지만 우리 팀은 영화나 뮤지컬을 보고 차를 마시면서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등 확실히 차별화되어 부러움을 산다.”고 말한다.

덕분에 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서울서부지사는 공사 직원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어 하는 지사로 소문이 났다. 무엇보다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대다수가 자신의 일터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 이런 만족감은 고객을 응대할 때에도 자연스럽게 반영이 된다.

임 주임은 “입사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는 고객과 의사소통이 힘든 경우가 많았다”면서 “그럴 때마다 친한 친구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고객을 대하다 보니 훨씬 수월하고,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었다.”고 말한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은 서울서부지사의 실내 인테리어에서도 드러난다. 예전에는 직원들이 근무하는 자리에서 고객이 불편하게 앉아 상담을 해야 했는데, 이제는 따로 응대 카운터를 만들어 상담을 진행한다. 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로 오는 경우가 많아 룸 형태의 고객 상담실도 만들었다. 또한 한 번의 방문만으로도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고객이 서비스를 제공받은 뒤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확인하고, 있었다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다.

지사장의 말을 믿고 따르는 직원들이 있고,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지사장이 있는 한 서울서부지사는 전국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일터가 될 것이다. 🏡

부모님의 경제적 자립이 효자 자식을 만든다

김은정
박호출고객의 딸
경기도시흥시능곡동

내가 서른 초반이었을 때, 동생과 암 보험에 가입하며 호기롭게 외친 말이 있었다.
 “일흔 넘어 암 걸리면 그냥 죽자!”
 그때 일흔이 그렇게 젊은(?) 나이인지, 아직도 살아갈 날이 촘촘하게 많이 남은 나이인지 몰랐다. 나처럼 눈 어둡고 미련한 사람에게 세월은 딱 살아온 만큼의 지혜만 나눠주는가 보다. 그 당시 부모님은 예순을 갓 넘기셨고(돌이켜 생각하니 정말 미련하고 미련하다. 당시 부모님 연세가 예순을 넘겼으니 일흔도 바로 턱 앞인 걸 왜 몰랐을까), 나는 일흔이란 영원히 오지 않을 멀고 까마득한 그 언제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일흔이 넘으면 몸에선 흠냄새가 폴폴 날 테고 세상사에 그다지 미련도 없을 것 같았다. 그러니 암 보험 최종 만기를 일흔 살로 못박아버린 것이다. 그러며 또 덧붙인 입바른 말마디.
 “일흔에 만기돼서 보험료 환급받으면 우리 그걸로 여행가자.”
 암 걸리면 죽어야 할 만큼 늙은 나이라며, 여행은 무슨가당키나 한 망발이었는지. 그런데도 그때 여든 살과 일흔 살 암 보험 만기를 자유롭게 지정하라 했을 때 아무 망설임 없이 ‘일흔 살’이라고 쿵쿵 못을 박아버린 것이다.
 참 세월이 빠르다. 부모님 환갑 해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남편이 벌써 환갑이고, 우리 세 자매도 이미 중년의 문턱을 넘어선 지도 한참이다. 이제 부모님은 여든을 바라보는 연세가 되셨지만 아직 정정하시고 반듯하시다. 흠냄새도 안 난다. 그런데도 혹여 부모님께서 돌아가신다는 생각만으로도 두렵고 외롭다.
 부모님은 평생 당신들 손으로 당신들의 삶을 성실하게 꾸려온 분들이다. 칠 남매의 맏아들로 맘여느리로, 세 딸의 부모로 아끼고 아끼며 발바닥 부르르 뜨게 일생을 살아온 분들이다.
 결혼 삼년 만에 아버지 직장 근처로 살림을 날 때, 한쪽 다리가 부러진 소반과 수저 두벌, 밥그릇 두벌 들고 나오셨단다. 중학교를 중퇴하신 아버지는 평생 중소기업의 말단직원으로, 어머니는 보파리 장사, 소 키우기 등 험한 일을 하며 우리를 키우고 가르치고 살림을 불려나가셨다. 평발이라 조금만 걸어도 발바닥이 아프다고 하시는 엄마, 목 디스크로 ‘아이고, 등짝 발라라’ 소리를 입에 달고 사는 엄마, 그런 우리 엄마가 큰 보파리를 머리에 이고 하루에 단 네차례 다니는 수인선 협궤열차를 타고 서해안 포구마을



마다 돌아다니시며 옷 장사를 하셨다. 지금도 한겨울 새파랗게 언 얼굴로 커다란 보파리를 이고 장사를 나가던 엄마의 뒷모습이 떠오르면 울컥 눈물이 솟곤 한다. 아픈 기억은 강산이 서너 번 바뀌어도 그대로 심장 가까이 시퍼렇게 살아있나 보다.
 우리 부모님의 땀과 갈라진 손끝과 저절로 꿈 소리를 나게 하는 관절의 고통이 만들 어낸 대차대조표는 인천의 작은 상가 건물 하나였다. 상가 건물이라니까 제법 괜찮아 보이지만 비가 조금만 와도 물에 잠겨 세도 못 놓는 지하와 일층에 손바닥 만한 상가 세계, 이층과 삼층에 셋집이 있는 근린생활건물이다. 게다가 주택가에 위치해 그다지 세가 잘 나오는 건물도 아니다. 그런데도 톡하면 아버지 칠남매 중 서넛이, 심지어는 조카들까지 돌아가며 기웃거렸다. 우리 아버지 생신 때 코빼기는커녕 안부인사조차 변변히 안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큰 건물을 갖고 있으면서, 큰오빠가 돼서, 그냥 보증만 서주시면 된다고요’라며 무슨 일만 생기면 손을 벌렸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 분들은 은행이나 사채에 보증서는 것을 그냥 종이조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다. 자신은 당연히 은행이나 다른 사람의 돈을 쓰는 것이고, 그냥 이름만 빌려주는 건데 큰오빠가 돼서, 큰형이 돼서, 큰외삼촌이 돼서 그까짓 거 하나 못 해주냐는 것이다.
 문제는 그것 뿐이 아니었다. 지은 지 이십 년이 넘은 건물은 여기저기 물이 새고, 녹이 슬고, 게다가 건물 설계가 잘못 됐는지 비만 오면 지하에 하수도가 역류해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가 밤낮을 가릴 것 없이 양수기를 돌리고, 어머니는 허둥지둥 옥상으로 올라가 비설거지를 해야 했다. 그러니 비만 오면 부모님은 안절부절못하셨다.
 지하에 내려가다 넘어져 아버지 정강이가 파이는 사고가 있는 후, 우리 자매는 집을 팔고 아파트로 가시면 어떠시냐고 여쭙다.
 “그러면 좋기는 한데, 당장 생활비가 문제지.”
 상가와 셋집에서 나오는 월세로 빠듯한 살림을 해 오신 부모님은 당장 집을 팔고 편한 아파트로 이사하면 생활비 나올 데가 없어지는 것, 여유 자금을 남길 수 있도록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다 해도 몇 푼 되지도 않을뿐더러 마땅히 투자할 데도 없을 것이었다. 뿐이라. 집 판 돈이 생긴 것을 알면 여기저기 달려들 이리떼도 무섭고, 공교로운 말마

디에 홀랑 잘 넘어가는 아버지의 얇은 귀도 걱정이다. 그때 결단력 좋은 둘째가 한마디 했다.

“아파트로 가고 주택연금 가입해. 그러면 매달 생활비 나올 테고, 연금 가입하면 아무도 보증서 달라 뭐 해 달라 못 할 거야. 그리고 엄마 아버지도 좀 넓고 환한 집에서 편하게 사세요. 우리들은 지금껏 그래왔듯 대학까지 가르쳐주신 걸로 충분해요. 그러니까 집은 엄마 아빠 거구. 두 분 맘 편히 이걸로 사세요.”

그렇게 결정하고 나자 생각보다 쉽게 건물을 팔 수 있었다. 지난 오년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근 부동산에 집을 내놨다 거뒀들이고 내놨다 거뒀들이길 수차례. 부동산중개업소에서든 처리가 힘든 매물이었는데 거짓말같이 매수자가 나타난 것이다. 사시던 곳에서 멀리 떠나길 원치 않으시는 부모님 뜻대로 인근 고층 아파트를 구입해 수리하고 이사하셨다.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일이 척척 진행되었다. 돌이켜 생각하니 평생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온 부모님의 공덕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2011년 3월 11일, 주택연금에 가입했다. 가입상품은 정액형으로 부모님 살아 계실 동안에는 매월 129만 2380원이 꼬박꼬박 통장에 입금된다. 평생 거처하실 집 있고, 그 집을 담보로 부도나거나 떼먹고 달아날 염려 없는 든든한 국가기관에서 생활비를 지급받게 된 것이다.

주택연금 가입 전, 구체적 상황을 문의하러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천지사를 방문하였더니 담당자가 빙긋 웃으며 “따님이시지요?”했다. 그러며 덧붙인 말 “대부분 따님하고 오세요.”

막상 가입하려 세부 사항을 알아보던 중 얇은 생각엔 초기보증료며 연보증료 등등의 항목 때문에 ‘실제 주택 가격에 비해 수령하는 연금액이 적어 남는 게 없네’라는 생각이 들었다. 워낙 독립심 강한 우리 자매들은 부모님 유산에는 마음을 비웠지만 그래도 남는 게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깐 망설였다.

부모님께서도 “우리가 몸뚱이만 살림 나와 하두 고생을 해서 니들한테 부모로서 뭐 좀 남겨주려 했는데…”라며 서운해 하셨다.

하지만 연금 수령 2년째인 지금, 정말 편하고 좋다. 매달 꼬박꼬박 은행 통장에 입금되는 생활비 덕에 부모님도 독립적 경제 주체로 사실 수 있게 되었다. 게다가 ‘월세가 제대로 안 들어오면 어쩌나, 가게가 빈 지 두 달이 넘었는데 왜 세입자가 안 들어오나, 지하실에 물차면 어쩌나, 이번 봄엔 옥상 방수공사해야 하는데...’ 같은 잔걱정을 안 해도 되었다. 사실 어느 자식이 매달 꼬박꼬박 제 날짜에 생활비를 평생 입금해 드리겠는가.

요즘 우리는 농담처럼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는 잔소리를 한다.



“오래 사세요. 그래야 본전 찾고 이익도 보죠.”

연세 탓에 당뇨와 혈압, 그리고 아버지는 몇 년 전 받은 인공고관절 수술로 거동이 조금 불편하시기는 하지만, 두 분 모두 밝고 건강해지셨다. 아침마다 아파트 뒤 공원을 돌며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노인정에 나가 소일거리기도 하시고, 노인복지센터에 나가 이것저것 강의도 들으시고 포켓볼도 치신다.

종종 강의에서 들었다며 다소 엉뚱한 말씀을 하시다 우리에게 애교 섞인 통박을 듣거나 감동을 주기도 하며 “늙어 그런가. 들을 땀 다 알 거 같은데 니들한테 전하려면 까마득하네” 변명도 하신다.

난 요즘 친구들에게 주택연금을 열심히 홍보한다. 내가 경험해 보니 얼마나 맘이 편한지 알기 때문이다. 평균 수명의 증가, 가족 구조의 변화로 노인 부부 세대나 단독세대가 노인 세대의 절반이 넘는 우리나라의 사회 구조,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육박하는 고령사회로의 전환이 급속하게 진행되는 우리나라. 하지만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지는 아직도 미흡한 우리의 실정으로 볼 때 우리의 노후는 우리 스스로 준비해야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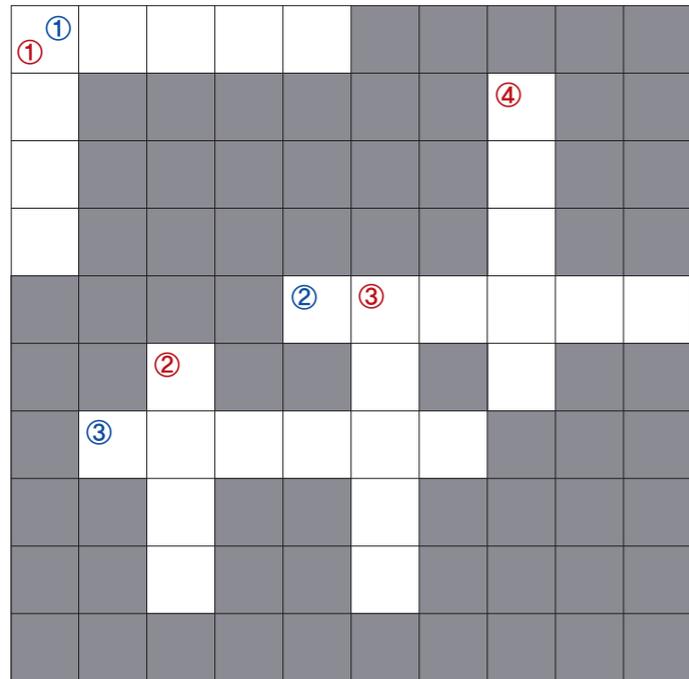
효심 가득한 자식의 봉양을 받으며 편안하게 노후를 누리는 것! 모든 부모의 소망일 수도 있다. 하지만 경제적 독립을 갖춘 부모가 더 좋은 것이 자식의 마음이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기본적 생활비가 평생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식이 종종 들러 장도 봐드리고, 밑반찬도 해드리고, 용돈도 드리는 것! 나는 정말 편하고 좋다.

부모님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시니까 남편에게도 떳떳하고, 마음이 편하니까 친정에도 자주 가게 된다. 부모님의 얼굴이 밝아지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주택연금에 늘 감사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 무보수 홍보대사로 나서게 된 것이다. 🏠



알쏭달쏭 낱말 퀴즈, 함께 풀어 보세요

주택연금 가을호 기사들이 도움 되셨나요? <주택연금> 가을호에서 소개한 다양한 개념과 정보를 낱말 퀴즈로 풀어보세요. 본문에 나온 기사를 잘 읽어 보면 정답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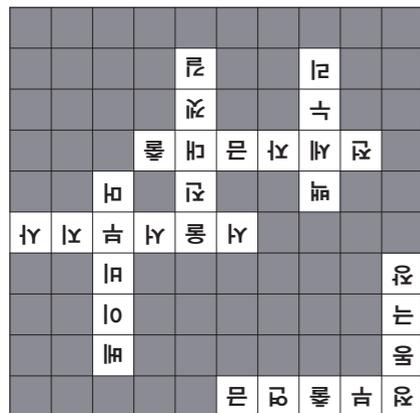


【가로열쇠】

- ① 주택연금보증의 재원 조성은 ○○○○○, 금융기관출연금, 보증료 등이며 2007년~2009년은 정부출연이 매년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정부출연금 없이 보증료수입, 금융기관출연금 등에 의해 조성되고 있다.
- ② 김포시와 부천, 서울 서부지역의 주택금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는 개소한지 이제 갓 5개월을 넘겼다. (본지 p26 참조)
- ③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집 없는 서민들이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 없이 은행에서 손쉽게 ○○○○○○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자금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로열쇠】

- ① 운치 있는 덕수궁 돌담길을 5분 정도 걸으면 '미소' 전용극장인 ○○○○○을 만날 수 있다. (본지 p25 참조)
- ② ○○○○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하고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운영하는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프로그램으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여 정부지원일자리사업과 시니어인턴십을 통해 재취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본지 p17 참조)
- ③ 창포말 등대 근처 영덕풍력발전단지과 고래불해수욕장, 울진과 영덕을 잇는 50km의 길은 속칭 '○○○○○'로 불리며 해안 도보여행을 위한 최고의 트레킹 코스로 손꼽히고 있다. (본지 p23 참조)
- ④ ○○○○○의 본격적인 은퇴와 함께 주택연금에 대한 기대와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본지 p9 참조)



가야할 길과 가지 말아야 할 길을 알려 주셨습니다

좋은 것을 보면 늘 먼저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고도 더 주려 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받을 차례입니다

부모님의 아름다운 인생을 위한- 주택연금

가입자격 | 부부 모두 60세 이상으로 9억원 이하의 집 한 채를 소유하신 분
 수령액 및 상품특징 | 주택가액 3억원일 경우 ⇨ 가입연령 75세 매월 127만원 수령 / 65세 매월 86만원 수령
 부부 모두 사망시까지 종신 지급 / 부부 사망 후 정산 : 남으면 상속, 모자라면 공사가 부담

서민의 주택금융 파트너



www.hf.go.kr 1688-8114

HF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www.hf.go.kr

지 사	대표전화	위 치
영업부	02-2014-8340~1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6-1 YTN타워 3층
서울남부	02-3290-6500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7-25 큰길타워빌딩 18층
서울북부	02-3499-3300	서울시 도봉구 창동 12-3 두승빌딩 8층
서울서부	02-2638-1900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692 디큐브시티 18층
부산울산	051-804-3977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260-1 한국외환은행 서면지점 5층
대구경북	053-430-2400	대구시 중구 덕산동 110 삼성금융프라자 23층
인 천	032-441-2155	인천시 남동구 구월1동 1146-9 용진빌딩 7층
광주전남	062-370-5700	광주시 서구 치평동 1208-2번지 8층
대전충남	042-223-2620	대전시 서구 둔산2동 949번지 신한중앙화관 2층
경기남부	031-898-5040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23-3 서울보증보험빌딩 9층
경기중부	031-478-7000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9 신한평촌금융센터 6층
강 원	033-259-3600	춘천시 중앙로 45번지 SC 제일은행 춘천지점 2층
충 북	043-299-2800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858-2 태산빌딩 5층
전 북	063-241-2779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가 1573-1 사학연금회관 6층
경 남	055-278-2900	창원시 중앙동 93-2번지 교직원공제회관 6층
제 주	064-726-5160	제주시 노형동 1288-5 노형타워 4층 406호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6-1 TEL 1688-8114